

**Big bowl in the shape of a boat**

Rare silver 999, hammered  
81 x 20 cm

**보트의 형태를 가진 큰 볼**

순도 99.9% 레어 실버, 단조  
81 x 20 cm

Photographer: Atelier Zimmermann, Augsburg



- 1958 in Germany
- 1983 passed the final examination to conclude his silversmith apprenticeship, since then has worked freelance in his own atelier
- 1991 passed the examination to become a master silversmith
- 1994 passed the examination to become a master goldsmith

- 1958 독일 출생
- 1983 견습 과정을 통해 최종 은세공사 자격증 시험 합격. 이후 현재까지 개인 작업실에서 프리랜서로 활동
- 1991 은세공 장인 시험 합격
- 1994 금세공 장인 시험 합격



Photographer: Atelier Zimmermann, Augsburg

**Big bowl in leaf shape**

Sterling silver, hammered  
diamonds, totaling 0.07ct TW/vsi  
56 x 48 cm

**나뭇잎 형태를 가진 큰 볼**

순은, 단조  
다이아몬드 총 0.07ct TW/vsi  
56 x 48 cm



### Big Bowls

These two bowls are similar in dimension, but very contrary in the philosophy: one is slim and heavy, the other is wide, but very light weighted.

The wide one is hammered extremely thin – the result is, a flexible bowl.

You can bend it easily 5 cm and it will fibrate for some time, after you release it.

The slim one is hammer from a 1.5 mm thick and for a silversmith very "soft" rare silver.

A connecting characteristic of both bowls is how they stand on the ground:

There is no special construction to keep them standing, but they are hammered so pre-cise in order to keep them exact upright, providing they are placed on a straight and level platform ore table.

If you touch them, the bowls will move smoothly and come back to the upright position after a while.

### 큰 볼

이 작품들은 크기는 유사하지만, 철학적인 면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. 한 작품은 얇고 무거우며, 다른 한 개는 넓지만 아주 가볍다.

넓은 작품은 극도로 얇은 상태까지 망치질하여 탄력을 가지고 있다.

5cm 정도는 거뜬하게 구부릴 수 있으며, 바닥에 두면 얼마 동안은 진동이 지속될 것이다.

얇은 작품은 1.5mm의 두께로 망치질되었으며, 은세공 작업을 하기에 매우 '부드러운' 레어 실버로 제작 하였다.

지면에서 스스로 지탱이 가능하다는 점은 이 두 작품의 공통적인 특징이다. 이 작품들을 서 있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구조를 설계하지는 않았다. 하지만 정교하게 망치질을 하여, 마치 반듯하고 평평한 대리석 식탁 위에 놓여진 것처럼 정확하게 서 있도록 하였다.

이 작품들을 만지면, 볼은 부드럽게 움직일 것이고 잠시 후 원위치를 찾아 똑바로 서게 될 것이다.